

7명 “선도탈당 구체화 되면 참여”

김근태 진퇴양난

黨 수습 묘안 없고 사퇴도 어려워

‘당헌개정 무효’ 수용 후 與 광주·전남 의원들 행보

통합신당 대부분 찬성...방법·시기 입장차 지병문·김동철 “질서있는 대통합 나서야”

법원의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 수용 이후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전당대회 무효론’이 확산되면서 통합신당과의 선도 탈당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통합신당론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입장에서 방법과 시기 등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선도탈당이 구체화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의원은 이미 탈당을 선언한 염동연 의원을 주축으로 양형일, 주승용, 우윤근, 유선호, 김태홍, 김성근 의원 등 7명이다.

21일 양형일 의원은 “29일 열리는 중앙위 의결 및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무망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선도 탈당 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김한길, 전전배 의원 등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며 “정동영 전 의장이 움직인다면 선도 탈당 규모는 5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홍 의원은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상태”라 1차 탈당에는 합

류하지 않더라도 2차에는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염동연 의원은 22일 귀국 이후 2~3일내에 탈당계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이미 열린우리당론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파산 선언을 받은 상태이므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백지 상태에서 민주세력 대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전당대회를 통한 대통합은 ‘도르 우리당’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병문, 김동철 의원 등은 선도 탈당보다는 질서있는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일단 29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지켜본 뒤에 탈당 등에 대해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고건 전 총리의 중도 사퇴 등으로 외부에 별다른 통합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선도 탈당은 명분이 없다는 의사가 나타나고 있다.

지병문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비대위에서 대



‘기간당원제 폐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이후 열린우리당 내에서 ‘2·14 전당대회’ 무효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영등포 당사 회의실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 길을 가자고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탈당 등을 결정해야지 벌써부터 선도 탈당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 의원은 “중앙위원회의에서 일부 강경파들이 근본주의자적 행동으로 소위 ‘경관’을 친다면 탈당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측 핵심 관계자도 “김 의원의도 통합신당론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탈당 및 분당보다는 질서있는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

고 밝혔다.

사수와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기정, 이영호, 서갑원 의원 등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지역 여론이 통합신당 창당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방향 선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갑원 의원 핵심 관계자는 “당분간 당내 흐름과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의원의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김기정 의원 관계자도 “의원은 사수파가 아니며 중도적 입장에서 질서있는 대통합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다 이야기 파문에 빠진 정동태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사절하며 정계개편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진퇴양난의 고독스런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19일 법원의 ‘열린우리당 당헌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 수용 이후 당 내에서는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지지만 정작 문제 해결의 묘안은 커녕 아무 방향제시도 못한 채 사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1일 “어려울수록 큰 길을 가야 합니다”라는 서신을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공중분해 직전에 놓인 당을 일단 수습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탈당의 명분을 얻은 통합신당과 다음 전당대회의 기세를 잡은 당 사수파를 제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 의장은 또 서신에서 탈당과 당 사수파 모두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단 내부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내달 14일 전당대회까지 당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히려 다음 주 중 전전배, 염동연 등 통합신당파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 될 경우 김 의장은 당의 질서 있는 퇴각과 통합신당 추진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법원 판결 직후 정장선, 이강래, 이석현 등 비대위원들도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현재의 당 지도부인 비대위 자체도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회의에서도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 의결을 거칠 것인지, 기 당원제로 전대를 치를 것인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표결로 결론을 냈다.

김 의장은 20일 밤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문희상, 유인태 의원 등의 만류로 거취들이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지지율이 어쩔던 차기 대선주자를 노리고 있는 김 의장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당내 라이벌 관계인 정동영 전 의장은 고건 전 총리의 사퇴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21일에는 이번 법원 판결을 들어 “결단을 각오할 수 있다”며 탈당 카드까지 열어놓는 등 한층 자유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신은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고 당 내에서 지도력도 인정받지 못한 채 당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젠 實利다

(7)기업인·부자 미워말자

‘눈치 소비’ ‘익명 투자’ 富 역외유출 언제까지

지난해 말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일명 ‘황제마케팅’을 비밀리에 진행했다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적이 있다.

황제마케팅이란 일종의 VIP마케팅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최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일컫는다. 당시 백화점들은 각각 매출 최상위 고객 1천여명을 초청해 이들에게 별도의 쇼핑시간을 주고 음식과 다과 등을 제공했다.

백화점들이 황제마케팅을 전개한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처럼 부자들의 매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불황기에는 부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매출이 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백화점들은 왜 공개적으로 황제마케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는 남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부자들의 습성을 고려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유독 기업인과 부자를 백안시하는 광주·전남지역민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화점들은 고급화·명품화를 통해 활인점과의 차별을 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백화점들의 황제마케팅은 어쩌면 생존을 위해 택한 교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민들의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 전국 20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호감지수(CFI)’를 보면 전국 평균은 100점 만점에 50.2%인데 광주는 46.5점으로 대구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CFI는 기업인이나 부자에 대

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아진다.

전국적으로는 CFI가 2003년 첫 조사때의 38.2점보다 12점이 높아지는 등 반기업 및 부자 정서가 해소되고 있지만 우리지역민들의 반기업 및 부자 정서는 호전속도가 더딘 편이다.

얼마전 모 백화점 고위간부를 만났을때의 일이다. 이 간부는 한 부부가 백화점 명품 시계코너에 들러 수천만원하는 고급시계를 두개 시간적이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큰 고객이다 싶어 공손하게 신분을 물었지만 신분노출을 꺼려 흘려서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주로 수도권에서 근무했던 이 간부는 “수도권에서는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VIP 대접을 받는데 의였다”며 “광주에 명품관이 없다면 이런 고객들은 서울 등지로 원정쇼핑을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지역 정서를 감안해 PB(프라이빗 뱅킹) 고객관리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 금융자산 3억원 이상을 가진 고객을 PB센터에서 관리하는데 대략 고객수는 1천여명 정도다. 하지만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PB마케팅 전개시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실이다.

시중은행인 하나은행 PB센터의 한 관계자는 “부자들이 싫어하는 지역정서가 남아있는 한 부자들은 지역내에서 돈을 쓰지않고 큰 돈을 가진 PB고객들도 익명성이 보장된 수도권에서 돈을 굴리고 소비한다”며 “정당한 부의 축적을 인정할때 지역내 부자들의 돈이 지역으로 환원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y@kwangju.co.kr



광주·전남 反부자 정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정당한 富 축적 인정해야 부자들 돈 지역 환원

RbK

Road to Paris

파리 도심을 가르는
리복 '2007 파리 국제 마라톤'대회!

리복과 함께라면, 당신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하나. 제3회 파리 국제 마라톤 참가 이벤트
제품 구매 후 생성하고 다양한 러닝 에티켓을 리복사이에 기록해 주세요!
우수작품 선발하여 파리 마라톤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행운을 드립니다.
(마라톤 티켓, 항공권 숙박 등의 일체 경비 포함)

둘. 낭만의 도시, 파리 항공권 경품 이벤트
리복 프리미어 펌프 패리스 트레이너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파리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셋. 체계적인 셀프-러닝 트레이닝 CD 증정
마라톤 전문가들과 함께 완성한 3개월 프로그램에 맞춰 연습하시고,
플루스 마라톤에 도전해 보세요.

이벤트 과학 연구 부소 82개 회원 82개 지체인 시안은 리복 러닝사(www.tbkuning.co.kr)를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한정판